

도교육청, 무주군과 교육협력 강화

무주교육발전 협약 체결
 학생 해외연수·방과 후 돌봄
 지자체 적극 협력 끌어내
 군 태권도 사업 강화 위해
 지역교육청 등과 연계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농촌유학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과 황인홍 군수는 27일 무주군청에서 '전북도교육청-무주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도내 하청연구 감소, 우수인재 유출, 지역 소멸 위기 등 지역 교육 공동현안에 대해 교육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과 황인홍 군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주군에 교육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방과 후 돌봄과 학생 글로벌 연수, 태권도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황인홍 군수가 27일 무주군청에서 '전북도교육청-무주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날 협약은 서 교육감의 공약인 학생 해외연수와 방과 후 돌봄 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무주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태권도 사업 강화를 위해 무주지역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도 좋은 협력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과 별도로 황 군수는 태권도 산업과 무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지역 학생 수가 급감은 분명히 위기지만, 교육력 제고와 책임있는 교육을 펼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협력은 무주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무주군과의 교육협력 협약 체결 이후 무주군의회 의원들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데 이어,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슬로건인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설명하는 특강도 실시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지역 학생 수 급

감은 분명히 위기지만, 교육력 제고와 책임있는 교육을 펼칠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협력은 무주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무주군과의 교육협력 협약 체결 이후 무주군의회 의원들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데 이어,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슬로건인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설명하는 특강도 실시했다.

서 교육감은 "농촌지역 학생 수 급



전주비전대학교는 27~28일 양일 간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2022 비전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노멀 시대 선도'

전주비전대, 오늘까지 '비전엑스포' 개최

'3D 공간캡처 기반 졸업작품 전시회'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7~28일 양일 간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2022 비전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2 비전엑스포는 전문학과 및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 학생들이 창의융합 학습의 결과물로 제작한 졸업작품의 전시와 뷰티 페스티벌,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학기간 중 배우고 익힌 전공기술, 그리고 산업현장의 실무기술을 결합한 작품들을 개발·제작해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엑스포의 테마는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졸업작품전'으로, 150여 개의 작품이 전시돼 이 중 몇 작품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특허청 장관상, 새만금개발청장상 등 주요 기관 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은 컴퓨터정보과 구주혁 외 10명의 학생(지도교수 권순연)이 공동 개발한 '3D 공간캡처 기반 Vision MetaVersity'이다.

이 작품은 3D 실사 기반의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VR·AR 등의 기술 융합을 시도해 메타포트(Metaport) 플랫폼을 활용한 비전 트윈 캠퍼스를 구축한 작품이다.

정상모 총장은 "이번 '2022 VISION EXPO'에 참가한 학생들은 산업체와 연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 그리고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엑스포의 테마는 '뉴노멀

전북대, 학술림 활동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숲 자원인 학술림을 활용,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 2004년부터 캠퍼스와 학술림을 활용해 산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문화교실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숲체험교육 사업에 선정돼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숲체험 교육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북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숲체험 교육은 최근까지 총 10회 실시했으며, 총 294명에게 숲의 다양한 동식물 체험과 놀이체험 등으로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이창현 전북대 학술림장(산림환경과 학과 교수)은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숲 체험교육을 통해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번 교육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한 숲 생태계 연결성을 깨달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심성을 키워 공동체 의식 상호협조 및 협력관계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창업지원단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창업 교육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지석근)은 언더독스주식회사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한 '하나 파워 온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25일 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대학교는 올해 9월부터 스펙트론나 설정 △이앤티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 및 코칭 등의 창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8주간 진행하였고, 10월 25일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우수팀 2팀을 선정했다.

우수팀은 11월 2일 발표 예정으로 우수 창업팀(지역)으로 선정되면 전국 우수팀 제후 위계약 지원 및 전국 우수 창업팀과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12월에 열리는 최종 성과 공유회에 참여하며, 성과공유회에서는 우수창업팀(전국)을 선정해 창업지원 자금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돌봄과 심리운동'

우석대, 한독심리운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는 지난 22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2년 한독심리운동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돌봄과 심리운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관련 분야 석사 및 전문가와 학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석대학교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2022년 한독심리운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이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임종환 인하대 의과대학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모두가 건강한 권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종섭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 송호준 평택대 교수, 김정연 전주효

사람가족요양병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주제 토론에서는 김윤태(유아보육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섭(아동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송지근(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정연(충남대 교수,

박진만 가족사랑요양병원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심리운동의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이어 신진 연구자 세션에서는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 석·박사 졸업생들의 학술논문 3편이 발표됐다.

남현천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심리운동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을 견인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독심리운동학회는 심리운동 발전인 독일과 연계해 국내 심리운동의 확산과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 김윤태 교수 등의 주도로 2014년 10월 창립했다.

지속가능 에너지산업 우수 인재 키운다

전북대, '섹터커플링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사업' 선정
 기계공학과 등 참여... 내달 21~23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섹터커플링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에너지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지속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고도화 실무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전북대를 비롯해 한양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4개 대학과 21개 기업, 21개 산학협력 기관 등이 참여, 2027년까지 정부지원과 대응자금 등 약 102억원이 투입돼 에너지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나선다.

사업 전체 주관은 한양대가 맡고, 전북대에선 임재혁 교수(공대 기계공학과)가 총괄 책임을 맡아 기계공학과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이 참여한다.



품 제작) 문제와 탄소 중립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Power2Gas(수소), Power2Heat(열), Power2Mobility(전기충전) 등의 에너지 변환, 다중 에너지 네트워크(AICBM),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도 연계 운영하고, 애

로기술의 효율적 솔루션 제공에 나서는 한편, 수요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필요기술 개발에 대한 최적화 기법도 교육할 예정이어서 기업 경쟁력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과 제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융합형 교육과 산학연 연계 교육의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취업할 연계한 성과 확산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에너지 분야 우수인재 공급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임재혁 총괄 책임교수는 "에너지 섹터커플링 융복합 트랙을 마련해 현재 10명의 석·박사 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가진 애로기술도 해소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 범 국가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섹터커플링 에너지산업 고도화 인력양성사업단은 오는 11월 21~23일 까지 2023학년도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29~30일 '전북수학체험한마당'

KBS전주방송총국 잔디광장서... 수학회 등 62개 부스 운영

전북도교육청과 학교교육원(원장 김정욱)은 29~30일 이틀 간 KBS전주방송총국 야외 잔디광장에서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제13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학체험한마당은 함께 즐기며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수학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중심의 지역 문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크게 △체험 및 상담활동 △수학회 △수학산책 등으로 나눠 수학보드게임, 수학방탈출 고대 숫자를 이용한 시계 만들기, 삼각형 변신팽이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수학대회는 3인 이내로 구성된 도내 초·중·고 학생 38개 팀이 수학으로 살리는 지구를 주제로 수학구조물만들기대회에 참가하며,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수학올림픽 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학산책은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을 대상으로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고, 수학 원리 탐구를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20명을 선정한다.

김정욱 원장은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수학 교과에 대한 친근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수학을 좋아하고 알고 싶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병 예방 교육 내실화와 감염병 예방 교육 활성화를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연수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성찰 및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역량 증진 △교육과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 교육 재구성 및 수업지도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학교 감염병 관리 방안 등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분임 토의와 사례 나눔, 시연 등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강사로는 김주영 김재갑김초숙 석교사와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이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코로나19를 담당했던 저경력 보건교사의 위기 대응 성찰과 향후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성찰 및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역량 증진 △교육과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 교육 재구성 및 수업지도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학교 감염병 관리 방안 등이다.

이날 연수는 김연병 예방 교육 내실화와 감염병 예방 교육 활성화를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